

데스크 시각

‘역전의 명수’ KIA ‘가을 야구’로 가자!



김 일 환 편집부국장

1972년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 군산상고는 부산고에 9회초까지 1 대 4로 시종일관 끌려 다니며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야구의 격언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기적 같은 기회가 9회말 투아웃 이후에 찾아왔다. 한 점, 두 점 따라붙은 점수는 동점을 넘어 5 대 4, 대역전승을 일궈냈다. 그것은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전설의 시작이었다. 이후 군산상고는 한국 고교야구의 강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올해 KIA 타이거즈의 야구는 예전의 군산상고 야구와 무척 닮아 있다. 지난 4월 23일 그 조짐이 보였다. 챔피언스 필드에서 벌어진 롯데와의 경기에서였다. 롯데 황재중 등의 초반 맹폭으로 KIA는 9회 초까지 2 대 6으로 뒤지며 완패 분위

였다. 질 것을 예감한 팬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떴고 경기장은 파장 분위기였다. 하지만 기적은 9회 말에 이뤄졌다. 롯데의 실책과 안타로 만들어진 만루 상황에서 KIA의 외국인 용병 브렛 필이 홈런을 쏘아 올렸다. 순식간에 동점. 그리고 이어진 끝내기 수구로 KIA는 대역전 드라마를 마무리했다. 이후에도 KIA의 역전 드라마는 심심치 않게 계속됐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의 야구’가 되살아난 것이다. 이제 KIA를 ‘역전의 명수’로 부르는 데 다들 주저함이 없다. 8월 한 달 동안 높은 승률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근성과 욕심이 있는 것이다.

9회 말 드라마 재현

시즌 초반 해도 KIA는 리빌딩이라는 화두를 안고 시작했다. ‘가을야구’ 후보로 꼽는 전문가들이 드물 정도로 허약해 기만한 팀이었다. 앞은 선수층과 부상선수의 속출, 명가의 재건은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 듯했다. 광주·전남 팬들도 그저 신인 발굴이 잘 돼 1~2년 후에는 우승을 한번 노려 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와 새로 지휘봉을 잡은 김기태 감독은 이런 부정적인 예상을 뒤엎어 버렸다. ‘형님 리더십’으로 근성의 야구를 되살려 내더니 지금은 리빌딩과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가장 핫한 팀을 만들어 냈다. 양현종·스틴슨의 원투 펀치, 최영필 등 든든한 중간 계투진, 막강한 마무리 윤석민 그리고, 급성장한 임준혁까지. 믿음직한 투수진과 백용환·이흥구·김호영·박찬호·황대인 등 KIA의 미래를 책임질 신인들, 또 이들을 앞에서 이끄는 김주찬·이병호·필·나지완·김원섭·신종길·김민우 등 중·고참들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2009년 V10을 달성한 이후 KIA는 지리멸렬했다. 재미없는 야구의 대명사였다. 승패는 고사하고 그 과정이 형편없었다. 이기고 있다가도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V10을 일궈 냈던 근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호랑이 야구에 대한 오랜 믿음으로 야구장을 찾았던 팬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금의 KIA 야구는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우선 재미있다. 지고 있어도 승리에 대한 갈망을 놓지 않는다. 항상 뒤집을 수 있다는 희망의 야구를 펼치고 있다. 마지막

승리를 장식하는 히어로 또한 한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종종 신인들이 맨 오브 매치(Man Of Match)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많은 점수가 나지 않아도, 꼭 승리하지 않아도 선수 개개인의 투혼이 고스란히 팬들에게 전달된다. ‘화이팅’이 살아있는 야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되살아난 근성의 야구

KIA 호랑이 팬들이 바라는 야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야구도 좋지만 근성과 끈기가 있는 야구,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날려 버리게 하는 호쾌한 야구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야구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치열하게 벌여지고 있는 5강 싸움의 승자는 KIA의 몫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을야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KIA는 분명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 믿는다. 가을야구의 판도를 분명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기적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V10이라는 경험은 그 어떤 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역전의 명수’라는 낙인도 또한 얻었다. KIA 호랑이가 5강을 넘어 가을야구의 기적이 되길 바란다. 화이팅 KIA! 화이팅 호랑이!

社說

극적 협상 타결... 남북교류 활성화 기대된다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가졌으니 다행이다. 불타는 애국심으로 전역을 연기하겠다는 젊은 병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로되 상당수 국민은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제 새벽 남북은 나흘째 밤낮 없는 피 말리는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측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및 서부전선 포격에 대한 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합의한 것이다. 이처럼 대화를 통해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 국면을 면치 못하던 남북관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견지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안보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올해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남북교류 접촉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남북 사이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언제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빌미로 남북대화의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번 대화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해서 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대북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지뢰사고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이 사과라는 표현 대신 유감 표명에 그친 것 역시 아쉽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 국면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부장한 남북관계를 자랑할 만하다. 북의 선전과는 달리 생활필수품 사재기나 현금 인출 사례 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이번 협상 타결로 각종 남북 대화와 남북 간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확장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이어져 70년간 쌓인 남북 간 불신과 반목을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혁신도시 이주 직원 정주여건 개선 서둘러야

빛가람 혁신도시가 광주·전남의 산업경제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산하 기업과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유치돼야 한다. 그 성공의 첫 번째 단추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조기 정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운영한 광주시장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 간부들이 흥금을 타놓고 이주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 간부들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노·정협의회 구성 ▲이주 직원 정착금 지원 ▲혁신도시 시·광주 간 직행좌석버스 노선 신설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건의했다. 현재 시장은 이주 직원 배우자 지원과 광주~혁신도시 간 응급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즉각 약속했다.

이주 기관 직원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하게 되면 이들의 역량을 광주·전남 발전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혁신도시의 빠른 정착에는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려온 이들에게 나누는 불과 9개월 전만 해도 병실 안전을 걱정해야 하고, 생수 한 병 값 만한 곳이 없었던 생소하고 척박한 땅이었다.

이제는 주말이면 이주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회사 버스에 몸을 실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주거·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특히 특목고나 자율형 공립고의 개교를 통해 자녀를 둔 이전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정철(鄭澈)일까? 강항(姜沆)일까?



강 대 석 시인·행정학박사

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수월정기를 치면 2개의 수월정기가 뜬다. ‘송강집’의 수월정기와 ‘수은집’의 수월정기인데 대조해 보면 글자 몇 자만 다를 뿐 내용이 같아 동일인의 작품임이 분명하다. 과연 원작자는 누구일까? 정철일까, 강항일까? 얼마 전 국내 유명소설가의 표절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도 글자 몇 자만 바꾼 표절이 있었을까?

먼저 수월정을 세운 정철(鄭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했다. 정철은 본관이 광주 정씨로 1547년 광양에서 태어나 29세 때인 1576년 문과에 급제한다. 그 후 여러 벼슬을 거쳐 51세가 되던 1598년 1월 나주목사에 부임하여 5개월 만에 낙향한다. 조선왕조실록과 나주시지(羅州市誌)에도 그러한 내용이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수월정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내용 중에 대략 2군데에서 작품의 원작자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나주목사에 지낸 광산후인 정철이 나이 50에 처사를 버림을 받고, 선친 옥천선생의 별장이 있는 광양으로 찾아가서’(前錦 牧光山後人鄭侯漢. 年五十而棄於世. 遂求先大夫玉川先生之別業於光陽...)

는 부분과 ‘병화 10년에 문물은 모두 사라지고 없으나, 수월정은 의구하다’(兵火十年. 文物一空. 而水月則依舊也)라는 부분이 있다. 즉 이 부분을 보면 수월정기의 원작자는 정철이 나주목사를 지낸 사실을 알고 있고, 병화10년을 겪은 분이라는 것이다.

송강과 수은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 송강은 1536년생으로 1593년에 돌아가셨고, 수은은 1567년생으로 1618년에 돌아가셨다. 생몰연대로 보면 수월정기가 송강의 작품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미 타계한 분이 1598년에 정철이 나주목사를 지낸 사실을 담아 글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병화10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전에는 10년의 병화가 없었다. 기축옥사나 신묘사화 등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건들은 대개 1~2년 만에 끝나는 기간을 모두 합쳐도 병화10년이라고 표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송강은 당쟁에 의해 유배와 낙향은 몇 번 있었지만 일관 중에 타계하여 10년 병화는 겪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이에 반하여 수은은 1618년까지 생존 하였으므로 정철이 나주목사를 지낸 사

실을 담아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병화 10년 부분도 수은은 1592년 임진왜란시 영광 수성을 위한 의병활동과, 정유재란시 왜군에 피랍되어 1600년 5월에 귀환하였기에 오랜 전쟁을 겪은 분으로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은 집’은 1658년에 간행되고, ‘송강집’은 1674년에 간행되어 16년이나 먼저 나온 것도 수은의 작품일 가능성이 큼을 뒷받침 한다.

그렇다면 수은의 수월정기가 어떻게 송강의 작품으로 ‘송강집’에 실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추측컨대 정보가 어두운 시대였던 만큼 ‘송강집’을 편찬할 때 누군가가 송강의 작품으로 적당히 윤색하여 끼워 넣은 것은 아닐까?

수월정기의 자자오류를 보면서 혹시 또 다른 작가의 문집이나 작품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지, 수월정기 이외의 다른 작품들도 찾아내어 진실을 밝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누구를 위한 교육재정 효율화인가



김 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재원과 인력을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지정’, ‘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강화’, ‘소규모 학교 통합’, ‘교원 정원 감축’ 등 정부의 효율화 방안은 전남교육이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문제점은 시·도에 여건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학생 수 위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 있다. 현행(2012년) 표준교육비 산정 결과 등을 보면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 배분 시 학생 수 비중(31%→50%)을 높이면 전남뿐 아니라 전국의 농산어촌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된다. 예산뿐만이 아니다. 교직원 정원의 경우 도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치한다. 지금도 교육 여건이 훨씬 나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예산과 교직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은 순회교사와 상치교사, 복식학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의 효율화 방안은 소규모학교 통합 폐합 대상 기준을 60명 이하로 하고 있다. 전남은 현재 60명 이하 학교가 전체의 40%인 356개교이다. 이들이 모두 통합폐합 대상인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1년 1교, 1도시 1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움의 터전인 학교가 최근에는 지역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기본 단위가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이 학교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단점을 묻고,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기 때문이다. 전남은 1982년 이후 국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통합합을 추진, 802교를 폐지했다. 더 이상의 통합합은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올해부터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 의무 경비 지출 또한 지방교육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고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중세 없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최근의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세수 결손 등으로 교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 예산, 지방재정, 국가사업, 인건비 인상

등으로 세출은 늘고 있다. 누리과정의 의무 경비 지정은 기존 사업의 전면 백지화 등 재정 사업 간격을 흔들 것이다.

전남은 2015년 누리과정 예산 1442억 원에 대해 국고예비비(309억 원) 및 세수 결손지방채(496억 원)를 지원받아 처리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원만하게 처리한 것이다.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거점고 추진 과정에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가용 예산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점도 있다. 그러나 내년에 정부가 별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보육대란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문제를 더욱 고착시킬 것이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미래 농산어촌 교육의 희망을 앗아갈 것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에서 지방교육의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을 앞두고 지방교육에 환란이 없도록 정부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無 等 鼓

가시나무새는 고대 북유럽 원주민인 켈트족의 전설에 등장한다. 앞에서 깨어나 동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시나무 새는 아무도 가릴 꺼리는 가시나무를 찾아다닌다. 여기저기 다니다 가시나무를 발견하면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가슴을 찔러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 간다.

죽어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지 온 세상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정도라고 한다. 이 전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것은 처절한 고통을 치러야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닐까.

슬픈 전설만큼이나 가시나무새는 작품 속에서도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듀엣 가수 ‘시인과 촌장’의 허덕이가 작사하고 직접 부른 ‘가시나무새’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갈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 쉼 곳을 찾아 지쳐 날아 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가시나무 새는 가시나무숲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만 슬픔으로 메말라 있는 나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며 탄식하고 있다.

가시나무는 가시가 난 나무를 통칭하지만 식물학에서 말하는 진짜 가시나무는 참나무과의 상록활엽수를 가리킨다. 가시나무를 비롯해 붉가시나무·송가시나무·참가시나무·개가시나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가시가 없고 종류에 따라 작은 톱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가시나무를 가시목이라 하여 소나무처럼 귀하게 여겼다. 정조 18년(1794년) 호남 위유사 서용보가 올린 글을 보면 “가시목은 완도에서만 나는 보물 같은 특산물로 단단하고 질겨 무기로 중요하게 쓰이는 데 가족나무나 상수

리나무 같이 뿔나무 취급을 받는다”며 ‘소나무 벌채 금지 규례에 따라 낙인을 찍어 관리할 것’을 임금에게 요청했다. 당시 완도에서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우수영(해남)에 숯 20석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때 가시나무가 제 가치를 인정되는 현장을 조사하고 올린 상소다. 완도수목원의 가시나무 숯가마 터가 사라지던 관리 자산 총 처음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200여 년이 지난 가시나무가 제 가치를 인정받는 듯해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Table with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